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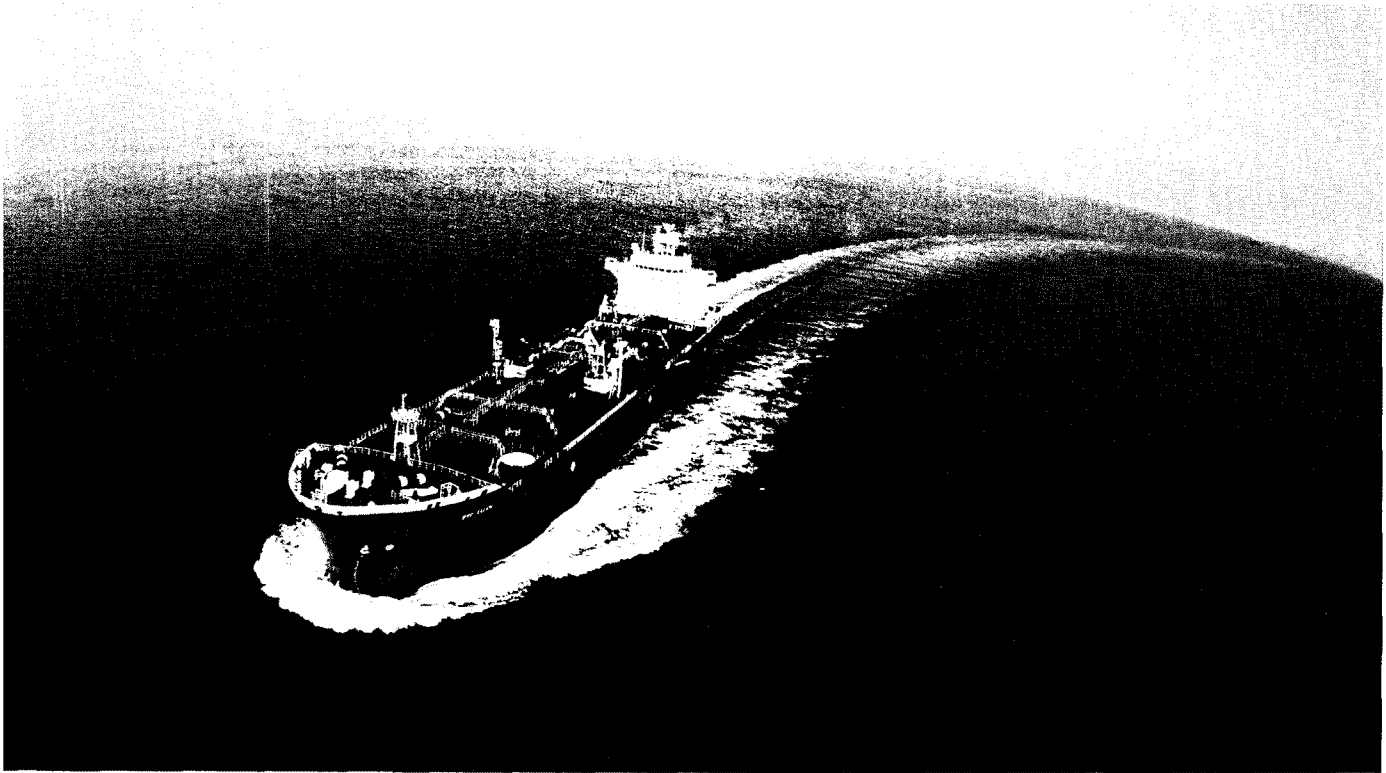
한·페루 FTA 8월부터 발효

인쇄용지·종이제품·잉크 등 관세 철폐

지난 8월 1일부로 한·페루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무역협회에서는 '한·페루 FTA발효와 수출확대 수혜품목'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다. 한국 무역협회에 따르면 페루와의 교역이 우리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EU, 미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만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지만, 페루의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관세율 때문에 중소기업에는 특히 유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페루에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종이제품, 잉크 등의 품목은 실적은 미미하지만 페루의 수입 수요가 크고 높은 관세(최고 17%) 철 폐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적극 나설 경우 높은 성과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쇄용지 등은 관세가 10년 동안 철폐되지만 관세율이 9~17%로 높은 만큼 관세 철폐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전망이다. 한편 중대형 자동차, 컬러 TV, 일부 의약품, 인조섬유, 비디오, 카스테레오 등은 9%의 관세가 즉시 혹은 5년 내에 철폐되어 단기간에 관세 철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글 | 임남숙 차장 sang@print.or.kr



유망한 신흥시장인 페루

페루는 유망한 신흥시장이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실질 기준)이 7.2%에 달해 중남미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빠른 경제 성장에 걸맞게 수입 시장도 연간 19.1%씩 성장하고 있고, 우리의 대페루 수출도 연간 27.3%의 증가율을 보이며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투자 유입도 연간 23.5%씩 늘어나 페루는 남미 국가 가운데 브라질에 이어 2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

페루의 수입품목 가운데 무관세 비중은 53.3%(품목수 기준)이며 평균 관세율은 5.1%이다. 우리나라가 FTA를 발효한 바 있는 칠레의 6.0%보다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관세가 있는 유관세 품목의 평균 관세율은 두 자릿수인 11.0%(칠레의 경우 6.0%)에 달한다. 페루 수입 시장의 빠른 성장세, 높은 관세율, 한·페루 FTA의 양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출 증가율은 그 어떤 FTA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페루의 경제동향

경제규모는 우리나라의 약 1/6, 인구는 약 1/2, 수출규모는 약 1/13수준이지만 2010년 8.8%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다. 특히 2009년 세계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페루는 최근 5년간 연간 실질 경제성장률이 7.2%에 달하는 등 주요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빠른 경제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페루는 빠른 경제성장에 걸맞게 교역규모는 최근 연간 17.1%의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간 50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했다. 2009년 금융위기 여파로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지만 페루수출은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이어왔다. 2010년 31.6%의 빠른 회복세를 보여 349억 달러를 기록했고 2011년 들어서도 30%대의 증가세를 이어나갔다. 수입 역시 2009년을 제외하고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최고 46.5%의 증가세를 보이며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한·페루 FTA 의의 및 주요내용

한·페루 FTA는 중남미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페루 시장에서 우리나라 상품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수출을 더욱 확대할 발판이 될 전망이다. 페루의 수입증가율은 2006~2010년 5년간 19.1%로 비슷한 경제규모의 칠레 12.6%, 콜롬비아 13.9%를 월등히 앞서고 있으며 브릭스로 꼽히는 브라질(19.8%)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 특히 전체 품목의 관세율은 페루가 5.1%로 칠레의 6.0%보다 낮지만 유관세 품목으로 한정할 경우 관세 수준은 11.0%에 달해 FTA 관세철폐 시 그 실질적인 효과가 칠레와의 FTA 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페루 수출도 동기간 연간 27.3%의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중남미 주요 수출 상대국 중 가장 빠른 수출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금번 FTA 발효를 통해 수출증가폭이 더욱 확대되어 수출 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FTA 발효 후 품목수 기준 한국 99.1%, 페루 99.9%의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며, 이는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보다 유리한 수준이다.

품목수 기준으로 페루의 즉시 철폐 비율이 67.9%, 조기(5년 내) 철폐비율이 81.3%, 10년내 철폐 98.9%이며, 양허 제외는 0.1%로 99.9% 품목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84.5%, 조기철폐 91.5%, 10년 내 97.4%, 양허제외 0.9%로 99.1%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교역액 기준으로는 페루의 경우 즉시 74.2%, 조기철폐 88.6%, 10년 내 철폐비율이 100.0%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즉시 94.2%, 조기철폐 96.2%, 10년 내 철폐비율이 100.0%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한국 양허 주요품목	양허유형	페루 양허 주요품목
연과, 스웨터 코르크, 바나나 등	5년 철폐	종이제품, 의약품, 필터담배 등
섬유판, 합판, 소시지 등	10년 철폐	인쇄용지, 잉크, 부직포, 신발류 등

한 페루 FTA 추진현황 및 공략전략

2009년 3월 협상이 개시된 한·페루 FTA가 2010년 8월 협상타결, 2011년 3월 공식서명을 거쳐 2011년 8월 1일 발효됐다. 한·페루 FTA는 우리나라가 발효한 7번째 FTA이며, 중남미 국가와는 칠레에 이어 두 번째 FTA다. 우리나라는 한·페루 FTA 발표를 통해 FTA 발표국이 총 44개국으로 늘어났고 FTA 발표국과의 교역비중 0.3%p 늘어난 25.2%까지 높아졌다.

한편 중·페루 FTA 발효(2010년 3월), 일·페루 FTA 서명(2011년 5월) 등 페루 시장에서 중국, 일본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업체가 페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한·페루 FTA 활용이 필수적이다. 특히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관발급(관세청, 상공회의소)에서 5년 후 자율발급으로 바뀌며, 한·EU FTA 인증수출자의 경우 발효 직후부터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정부 및 유관기관은 업체가 한·페루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동시에, 페루 및 칠레 등 남미 국가와의 FTA를 발판으로 남미 최대 시장인 MERCOSUR와의 FTA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정별 FTA원산지 증명서 발급기준 비교

자료: 외교통상부, 관세청, 한국무역협회

협정상태	칠레	ASEAN	EFTA	인도	EU	페루	미국
증명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원산지인증)	기관증명	자율증명 (원산지인증)	기관증명 (인증수출자는 자율증명) → 자율증명	자율증명
증명주체	수출자	발급기관	수출자	발급기관	인증수출자	발급기관, 인증수출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증명서 유효기간	2년	6개월	1년	1년	1년	1년	4년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송품장 신고	통일증명서식	송품장 신고	통일증명(기관), 송품장(인증)	자율증명서식
사용언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당사국 언어	영어	영어, 한국어